

한일 전후 소설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 비교 연구*

- 太宰治(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과
장용학의 「요한 시집」의 작중 인물을 통해 -

이호규**
lhg@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전후와 실존주의 | 3. 멜랑콜리커와 이상주의자, 그 현실적 선택의
비극성 : 자살과 생존 |
| 2. 소외와 이방인 의식 | 4. 나가며 - 삶에 대한 희망 |

主題語: 전후(post-war), 실존주의(existentialism), 불안(anxiety), 고독(loneliness), 저항(resistance), 존재(existence), 자살(suicide)

1. 들어가며 - 전후와 실존주의

다자이 오사무(太宰治)(1909-1948)는 쇼와(昭和) 10년대(1935-1945)를 대표하는 작가이며, 전후 무뢰파(無賴派)¹⁾의 선두주자였기도 했다. 본명은 쓰시마 슈지(津島修治)로 1930년 도쿄 제국대학 불문과 입학하고 대학 시절 좌익 운동에도 가담한 적이 있다. 이후 1935년 소설 「역행」으로 아쿠타카와 상 차석을 수상한 이후 작가로 활동하여 1948년 『인간실격』과 미완의 장편 『굿바이 굿바이』를 남기고 당시 애인 아마자키와 함께 수원지에 투신 자살하였다.

그의 집안은 원래 성(姓)이 없는 농민이었으나 메이지 시대 증조부가 재산을 축적하면서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대지주가 된 집안이었다. 그의 아버지 쓰시마 겐우에몬(津島源右衛門)은 귀족원 의원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그러나 증조부 때부터 이어온 농민들에 대한 교묘한 수탈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선과 허영은 다자이에게 오히려 죄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혼란, 퇴폐, 허탈을 표방하는 작가들로, 다자이, 이시가와 준(石川淳), 이토 세이(伊藤整), 오다 사쿠노스케(小田作之助),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 등이 있다 (유숙자 옮김, 다자이 오사무(2005) 『만년(晩年)』 한림서 일본현대문학대표작선1 도서출판 소화, p.244)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었다. 검증해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생래적으로 다자이는 순수성을 지녔던 게 아닌가 한다. 그는 「고뇌의 연감」에서 ‘나는 순수를 동경했다. 무보수의 행위, 전혀 이기심 없는 생활’이라고 하면서 ‘가장 증오한 것은 위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증조부때부터 아버지까지 이어지는 집안의 위선과 탐욕, 그리고 형제 중에서 미미했던 자신의 위치, 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과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의 존재(「나의 유년시절」에서 다자이는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아버지였다’라고 밝힌다.), 이러한 복합적인 성장 배경이 애초에 그를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자기 존재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져온 것이라 판단된다.

그의 완성된 마지막 소설 『인간실격』은 이러한 그의 자전적 요소가 깊게 배어 있으면서 전후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실존주의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작품이다. 일본 작가들에게 전후는 ‘정당한 적이고 친구이기도 한 자연이나 국가, 사회, 역사 등의 가치관이 붕괴된 무 또는 공백의 시간과 공간 속에 내던져졌다는 실감’을 가져왔다. 그 속에서 그들은 전후의 출발을 ‘폐허’라는 말로 규정하였다.²⁾ 그러한 인식은 ‘낡은 세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는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중의 부재상황의 공포³⁾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후 인식은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불러온 전후 인식은 거의 동일한 것은 전쟁이라는, 개인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버리는 대재앙이 불러온 공포는 기존 질서의 무너짐과 아울러 폐허의 공간에서 있다는, 그래서 새로이 스스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주체의식을 불러 오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새로운 출발 의식은 전후 직전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 모두 같았다. 전후 직전의 시대 의식은 전쟁의 비인간적 파괴가 불러온 절망과 폐허의식이었다. 그것은 서구에서도 1,2차 대전을 거치면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었는바, 서구에서 발생한 실존주의는 30년대 이미 일본과 한국에 전해졌지만 그 파급력이 폭발한 것은 전후 시기였다.

195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은 개인으로서는 예상할 수도 없었고, 그 광포함과 남겨진 상처를 감당할 수도 없었던 “재앙”으로서의 전쟁과 전후 사회라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 내동댕이쳐진 듯한 극한 상황 속에서 실존적 불안, 고독, 항거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즉 전쟁을 거친 전후 사회는 당대 지식인들에게 폐허와 혼돈, 방황의 시대, 거친 광야에 홀로 서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형국의 혼란기였다. 그때 실존주의는 ‘부조리, 불안,

2) 호쇼 마사오 외(1999)『일본현대문학사』문학과 지성사, p.309 참조

3) 엄창섭(1995.9)「실존주의 문학의 이론」『비평문학』9 한국비평문학회, p.193

4) 1957년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이어령은 그 해 1월 11일, 경향신문에 「火田民 時代-新世代之 文學을 爲한 覺書」를 발표하였는데, 그 글에서 그는 ‘우리는 화전민이다. 우리들의 어린 穀物의 싹을 雜草와 不純物을 除去하는 그러한 불의 作業으로써 出發하는 火田民이다’라고 일갈하였다.

공포, 극한상황, 고독, 저항, 기투, 자유'라는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감응력과 흡입력을 지닌 대안이자 삶을 새로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

그 실존주의를 받아들인 전후 세대의 의식 바탕에는 바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있는 발자국을 남긴 자는 없으며, 그 무엇도 기대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역시 없다는 고독과 소외가 깔려 있었으며,

앞선 모든 가치 체계와 기존 질서, 전통을 부정하고 스스로 단절하고자 하는 욕구 역시 강하게 내재하고 있었다. 그러한 인식과 욕구가 전후 사회를 그들 스스로 파악하고 규정하고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장용학이며 그 대표적인 작품이 「요한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한국 전후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장용학(1921-1999)은 1921년 함경북도 부령에서 출생, 1944년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경기고등학교 교사, 1961년 덕성여대 조교수, 1962년~1967년<경향신문> 논설위원·<동아일보>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1950년 단편 「지동설(地動說)」이<문예>지에 추천됨으로써 등단하여 1955년 「요한시집」을 발표하였다.⁵⁾

여기서는 서구의 실존주의가 어떻게 한일 전후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직선적으로 대입, 추출, 분석하고자 하지 않는다. 서구의 실존주의 자체가 하나의 개념으로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사상 체계가 아닐 뿐더러 서구의 실존주의에 얼마나 닮아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다지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존주의의 내용성 자체에 강점을 두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존주의의 이 운동성으로 말미암아 폐허와 혼동으로 일관된 전후의 현실은 작가들 앞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점은 작가의 의도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존주의라는 보편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결과였다.’⁶⁾ 문제는 한일 전후 소설에 나타나는 실존주의적 경향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전후 인식을 드러내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그 지점에서 드러나는 한국과 일본 전후 소설의 실존주의적 경향은 어떻게 다르며 당대 한일 양국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동아시아 전후 지식인의 내면을 관통하는 의식은 찾아낼 수 있나,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에 나타나는 실존주의적 경향을 당대 전후 사회와 연결지어 논의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성·조민지는 다자이 오사무의 병적 우울증에 초점을 맞춰

5) 「요한시집」은 실존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고 쓴 첫 작품이 된다.(-)내가 실존주의 작품을 읽게 된 것은 부산 피난지에서, 1953년 봄 어떤 학생이 寶水山인 나의 하꼬방에 사르트르의 「구토」를 들고 와서 (-)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한국전후문제작품집』(1964)신구문화사, p.400)

6) 박훈하(1996.3)「「요한시집」과 실존주의와의 대화성 시론(試論)」『코기토』 48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172

우울증에 의한 자기파괴의 정황을 『인간실격』에서 읽어내고 있는데, “‘인간실격’이 독자성과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 이유를 그 우울의 에너지로 보고 있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이재성·조민지는 본문에서 다자이 오사무의 우울증이 인간실격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지만, 그러한 논의가 전후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어떤 공감과 문체의식을 당대인들에게 던져주었는지에 대해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이 언급하는 보편성이란 탈시대적인 정서, 혹은 개인적 감성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실격』은 다자이 오사무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자전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며 전쟁 이전 초기부터 드러난 다자이 오사무의 데카당스적인 특징이 분명 보이는 작품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전후라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실존주의적 특징을 강하게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소설 속 인물의 자기부정이 단순한 자기비하가 아니라 인간의 애고이즘, 악습, 위선, 권력 등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⁸⁾이라는 언술의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외적 주박(呪縛)의 거대함은 그의 개체를 묶고 있던 주박을 하찮은 것으로 느끼게 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일본의 패전으로 시대 전체의 불행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알았다. 모든 절대적인 것, 황홀하게 하는 것, 피가 끊고 살이 떨어지는 것, 이들이 단숨에 무화된다.’⁹⁾라는 지적은 전전(戰前)과 다른 전후(戰後) 다자이 오사무의 실존주의적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자이 오사무나 장용학이나 공히 우리가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할 것은 서구의 실존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사고를 하고 소설을 썼다기보다는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실존주의적 인식과 태도가 전후 서구의 실존주의와 맞닥뜨리면서 (이 맞닥뜨리는 주체는 당대 지식인과 독자도 빠트릴 수 없다) 더욱 분명히 소설로 형상화되어 나타났고 그들의 소설을 실존주의적 소설로 받아들임으로써 당대 전후 사회의 절망과 불안을 느끼고 있던 당대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

즉 시대의 암울한 절망과 그 속에서 배태된 자유는 실존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새로운 세대의식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할 때 그 ‘실존주의적 자유는 일체의 과거와의 결별, 규율과 질서를 추구하는 세계와의 의도적 단절, 막연하게 꿈 꾸보는 미래¹⁰⁾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전후 세대에게 너무나 당연히 매력적인 것이며 폐허의 땅에서 기댈 수 있는 사상이었을 것이다.

7) 이재성·조민지(2009.8)「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정신분석학적 고찰」 『일본학보』 80 한국일본학회, p.155

8) 이재성·조민지, 앞의 글, p.155

9) 호쇼 마사오 외(1999), 앞의 책, p.378

10) 박명진(2013.6)「1950년대 전후 희곡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 『우리문학연구』39 우리문화회, p.305

2. 소외와 이방인 의식

다자이 오사무와 장용학, 두 작가에게 공히 나타나는 것은 철저한 소외의식, 외톨이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각성이다. 이는 생래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데, 그것이 제국주의 체제하에서의 일본에서였든, 식민지 체제하에서의 한국이었든 간에 1930~40년대의 단힌 현실과 나아가 황폐화되고 기존 질서의 붕괴로 인한 아노미적 과도기인 전후 사회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이 오사무의 최후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실격』은 그의 타 작품과 동일하게 자전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런 자전적 요소의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지 않고 그의 데카당스적 작품 속에 배태되어 있던 실존주의적 경향이 전후 사회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에 논의를 맞추어나가고자 한다. 그랬을 때 『인간실격』에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객관적 탐사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철저한 소외의식이다. 그것은 사회와 개인 간의 이중적 속임으로 나타난다. 즉 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짓으로 나를 속이고 나는 그런 사회를 또한 속인다. 그것은 자기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의식에는 철저하게 자신 존재의 개별성에 대한 자각이 동인(動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의 수기를 다른 화자가 전달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액자소설 방식인 『인간실격』에서 수기의 주체인 요조에 대해 전달자인 화자는 “괴상한”, “이상한”, “기묘한”이라는 세 단어로 설명한다. “괴상한 소년”, “이상한 미남”, “기묘한 남자”가 곧 세 개의 수기 각각을 설명하는 주제어가 되는 셈인데, 결국 요조라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거나 상식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평범하지 않는 인간이란 말이고 그것은 단힌 사회에서 곧 “실격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요조의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 불가능을 요조는 반복적으로 호소한다.

하찮은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뜻밖에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것을 스무 살 가까이 되어야 알게 됐고, 인간의 알뜰함에 압당해지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つまらない装飾だと思い、それが案外に実用品だった事を、二十歳ちかくなってわかって、人間のつましさに暗然とし、悲しい思いをしました。(11)

11) 太宰 治(2013)『人間失格』集英社文庫, p.11(이하 본문 인용에 페이지만 기재함)

이상적인 생활의 개념에 있어서도 요조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에게 슬픔을 안겨주는데 그 슬픔은 곧 세상과의 단절을 자각함을 의미한다. 단절은 곧 소통의 불가능을 가져오고 그는 속내를 드러내지도, 반발하지도 않는 괴상하고 이상하고 기묘한 남자가 되어간다.

결국, 저는 어느 사이에 한 마디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つまり、自分は、いつのまにやら、一言も本当の事を言わない子になっていたのです。 (p.16)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겉으로는 착하고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요조의 경우에는 자신은 현실 부적응자이며 세상의 논리는 자신의 이해와 수용을 넘어선 불가해의 영역이며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 인식에서 나온 그만의 처세술인 셈이다. 그런데 그 순응적 태도가 그에게 신경질적 내적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수용적 내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그저 부정적 습속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 저는 가족한테 어떠한 말을 들어도 말대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소한 꾸중은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이 강하게 느껴져서 저를 미칠 지경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말대꾸는커녕 그 꾸중이야말로 말하자면 만세일계(万世一系), 인간 세상의 ‘진리’라는 것에 틀림없다, 나한테는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없을 지도 몰라, 라고 확신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また自分は、肉親たちに何か言われて、口応(くちごた)えした事はいちども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わずかなおごとは、自分には霹靂のごとく強く感ぜられ、狂うみたいになり、口応えどころか、そのおごところそ、いわば万世一系の人間の‘真理’とかいうものに違いない、自分にはその真理を行う力がないのだから、もはや人間と一緒に住めないのではないかしら、と思いついでしまうのでした。 (p.16)

그 이해 불가와 단절의식은 다자이 오사무리는 작가를 떠올렸을 때, 가문과 일본의 전통적 구속과 사회적 간섭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단절 의식, 그로 인한 소외의식과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은 바로 실존주의적 특징에 다름 아니다. 요조는 그러한 다자이 오사무의 자의식이 투영된 인물이며 그러한 요조에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가치와 사람끼리의 불신과 기만,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서로 속이면서,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전혀 상처를 입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정말이지 산뜻하고 깨끗하고 밝고 명량한 불신이 인간의 생활에는 충만해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互いにあざむき合って、しかもいずれも不思議に何の傷もつかず、あざむき合っている事にさえ気が、ついていないみたいな、実にあざやかな、それこそ清く明るくほがらかな不信の例が、人間の生活に充満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ます。(p.26)

부잣집 아들에게가 수재인 요조는 세상에 대한 이해불능과 소통 부재를 철저히 내면화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을 속이는 부정의 부정이라는 기만의 방식을 택한다. 그것은 요조에게 익살로 나타난다. 그것은 세상과 어울리고 기존 질서에 스스로를 동일화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그것은 부정적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교묘한 장치이다. 그것은 세상의 습속을 받아들이거나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한 부정과 좌절이 가져 온 절망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조는 아버지, 어머니 아니 순경이나 정부에 호소해도 세상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자신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항상 질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현실인식을 갖고 있다.

요조와는 달리 부조리한 세상의 불합리한 습속에 따른 처세술로 영악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이 소설에서는 넘치(ヒラメ)와 호리키를 들 수 있다. 원래 이름이 시부타인 넘치는 고서화 골동품 상인으로, 요조의 아버지 심부름꾼 역할도 하고 있다. 그는 집안으로부터 눈 밖에 난 요조와 집안간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오히려 요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인물이다.

화방에서 만나 알게 된 호리키 역시 건달에 불과한 인물로 그때그때 자신의 이익에 좇아 행동하는 인물이다. 요조는 호리키를 통해 ‘타산적인 약삭빠름’과 ‘냉랭하고 교활한 이기주의’를 본다. 진정한 자이를 알 수 없는, 기회주의적이며 표리부동한 호리키의 처세는 요조를 아연하게 만드는데, 더 결정적 사건은 요시코의 강간 사건이다. 요조가 ‘신뢰의 천재’라고 불렀던, 순수했던 요시코는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장면을 처음 목격한 호리키는 그저 요조에게 고자질만 할 뿐이며 그 현장을 마치 지옥에서 빠져나가듯 혼자 떠나버린다. 요시코의 강간을 역시 무력하게 보기만 한 요조는 이미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하나의 기대, 즉 요시코의 순수와 타인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훼손당해버리고 마는 현실의 참혹함을 느낄 뿐이다. 그것은 요조를 가파르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트리게 만든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 절망하고 철저히 소외되어 버리는 인간은 「요한시집」의 누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에 비해 「요한시집」에서 한국전쟁과 전후로

이어지는 시간대에서 누헤라는 인물이 처한 공간은 훨씬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다. 한국 전쟁과 포로수용소라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야만의 시공간은 인간 세계의 부조리함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인간을 통해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소설에서 전쟁은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적 계기로, 즉 실존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누헤라는 인물과 그의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동호는 기실 딱 분리되어 있지 않다. 누헤의 지난 행적, 즉 사회주의로의 투신과 자발적 참전, 그리고 포로수용소에서의 침묵과 자살, 그 이어지는 선택과 행동을 설명해주는 것은 동호라는 관찰자, 전달자의 의식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때 동호의 의식은 동호 자신의 논리인데, 그것이 누헤의 선택과 종말의 이유를 아울러 설명해준다. 누헤의 유서가 제대로 읽힐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동호의 의식 세계 때문이다. 누헤는 살아남은 동호를 통해 실존주의적 사고와 삶에 대한 태도,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요한시집」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지점은 누헤의 삶의 궤적을 쫓아 전달하고 있는 동호의 자의식이다. 그것은 누헤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연장되고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누헤의 자의식과 누헤의 죽음을 목도한 동호의 자의식, 그것은 인간 실존의 본질적 문제이다.

나는 나의 일부분을 살고 있는 셈이 된다. 나는 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동호는 나인가? 나는 나인가? 12)

전쟁이 끝나고 포로수용소를 거쳐 석방이 된 동호는 고향에 돌아와 맞추어지지 않는 기억의 혼란 속에서 진정한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 회의에 빠진다. 앞 진술에서 반복되는 문장에서 주어인 ‘나’와 서술어 ‘나의 일부분’의 ‘나’는 다르다. 이러한 회의는 그렇게 생경스럽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다. 우리 역시 아들로써의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 남편으로서의 나, 각각의 다른 나 속에서 어느 순간 진정한 나, 그 모든 부분으로서의 나가 아닌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낯설지 않은 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그러나 동호에게 있어 절대적이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자기에 대한 실존적 회의와 고민은 이전 그가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었을 때, 제기되었던 것이다. 가슴에 “POW”라는 꼬리표를 단 자신, ‘이방(異邦)의 어린애’같은 자신을 보았을 때 그는 ‘이 나와 저 나를 같은 나로 느낄 확고한 근거는 없었다. 나는 나를 나라고 서슴지 않고 부를 수가 없었다.’ (p.98)

12) 장용학(1986)「요한시집」『20세기 한국소설 15』창비, p.94 (이하 본문 인용문 끝에 페이지만 기재함)

동호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작가의식은 극한 전쟁을 체험한 동호로 하여금 인간 역사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인간이 만들어온 역사의 부조리함에 공포는 회의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내던져진 존재로서의 실존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낙원이 끝나는 곳에 인간이 등장하고 돌도끼와 횃불을 손에 든 인간이 ‘좀 있으면 비너스를 찾고 그 앞에 제단을 세운다. 주문을 몇 번 뇌까리면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아가 눈을 뜬다. 그 부지에 공장이 서고, 그 연기 속에서 이 층 건물이 탄생한다. 공화국은 만세를 부르는 시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감찰을 나누어준다.’ 애초부터 인간은 낙원이 흔들리기 시작한 곳에 폭력과 파괴의 역사를 만들어온 것, 건설과 혁명의 역사는 바로 폭력과 부조리의 이어짐에 불과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동호는 ‘이런 역사는 그만하고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집단적이고 폭력적이며 부조리한 역사의 청산, 개별자로서의 실존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바로 동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소설의 주제이다. 그것이 한국 전쟁과 포로수용소라는 극한 상황과 공간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동호의 인식에는 바로 누헤의 삶과 죽음이 있었던 것이다.

누헤는 의용군이 아니고 이북에서 내려온 괴뢰군이였다. 즉 그는 이남 출신이지만 스스로 월북하여 공산군이 되었고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누헤는 왜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인가. 그가 남긴 유서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누헤가 본 세상은 실존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기율과 규칙과 타율이 행동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 부조리한 세상일 뿐이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나서 닷새 후에 이름이 지어졌는데 오히려 그 며칠 동안이 오직 하나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호명되지 않는 존재 그 자체가 순정한 자아라는 것. 이름이 지어지고 호적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존재를 부여받게 되고 사망계를 제출해야 죽음이 허용되는 세상은 삶의 모든 과정에 그러한 계약과 규칙이 이어지는 속박과 구속의 제한된 세계일뿐인 것이다.

그런 그가 ‘인민의 벗이 됨으로써 재생하려고’ 들어간 당에는 ‘인민은 거기에 없고, 인민의 적을 죽임으로써 인민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었고 그것은 또 다른 벽일 뿐이었다. ‘그 벽을 뚫어보기 위하여’ 전쟁에 참가했지만 그는 포로가 되었고 그가 꿈꾸었던 모든 것은 기만과 흥분이었고 남은 것은 환멸이었던 것이다. 포로수용소는 또 다른 전쟁터였고 오히려 그 전쟁은 더욱 잔혹한 절망과 환멸을 낳을 뿐이었다. ‘내 살이 뜯겨나가고 내 피가 흘러내린 이 전쟁이 과연 내 전쟁이었던가?’ 이러한 포로들의 깨달음은 진정한 실존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들만의 전쟁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된다. 철조망 안에서 두 번째 전쟁은 ‘인간의 한계를 넘은 싸움’이며,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는 싸움’이었다.

사상의 이름으로, 계급의 이름으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생이 장난감인 줄 안다. 인간을 배추벌레인 줄 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도리가 없었다. ‘인간 밖’에서 일어나는 한 에피소드로 돌려버릴 수밖에 없었다. (p.112)

누혜에게 현실에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다. 살아남은 동호는 그러한 누혜의 분신이자 메신저이다.

3. 멜랑콜리커와 이상주의자, 그 현실적 선택의 비극성 : 자살과 생존

요조의 소외는 외부 세계의 단편 일상과 부조리한 습속에 스스로를 맞출 수 없었던 생애적인 저항과 실존의 무의미성 속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한 몸부림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누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조와 누혜가 부조리한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기존 질서에 맨 몸으로 저항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어쩌면 본인 역시 하나의 인간이므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 존재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일지도 모른다) 그 자체였다.

그것은 저의, 인간에 대한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익살이라는 가는 실로 간신히 인간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それは、自分の、人間に対する最後の求愛でした。自分は、人間を極度に恐れているが、それでいて、人間を、どうしても思い切れなかったらしいのです。そうして自分は、この道化の一線でわずかに人間につながる事ができたのでした。 (p.15)

요조는 위선적인 익살을 통해 기존 질서와 소통하고자 하였고 누혜는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러하고자 하였다. 다자이의 작품 중에 의외로 익살적인 유머러스한 작품이 많은 것은 요조를 통해 나타나는 세상에 대한 소통 의지를 다자이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그 익살은 실패와 환멸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질을 숨긴 위선적인 처세의 방법으로 택한 익살은 세상을 속이거나 조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인의 깊은 소외와 실존적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익살은 깊은 우울과 슬픔을

숨긴 가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자이 오사무는 멜랑콜리케¹³⁾였으나 그러나 완전한 멜랑콜리케는 되지 못했다. 그는 꿈꾸었을 뿐이다. 요조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그가 고희의 자화상을 보여 주었을 때 다케이치는 도깨비 그림이라 하였다. 그 답에 요조는 자기도 도깨비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화가가 되지 못했다. 요조가 꿈꾸었던 화가, 그 룰 모델로 나오는 고희 등의 화가는 그들이 살았던 당대에서 분명한 멜랑콜리케였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도깨비에게 상처 입고 위협받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관에 의해 아름답게 창조하고, 혹은 추악한 것에 구토를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흥미를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희열에 잠겼던’ 인물들이었다.

이에 비해 누헤는 이성적인 지식인으로 출발한다. 그 역시 기존 질서의 억압성과 부조리함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 돌파구가 이성적인 선택, 즉 사상으로의 투신이였다. 하지만 사상 역시 그를 배반하였다. 사상이 배반했다기보다 인간이 그를 배신하고 절망케 했다. 그 절망을 다시 극복하기 위해 참전했지만 포로가 되었다. 그 상황에서 그가 느낀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그에게 ‘역사는 흥분과 냉각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았다. 지동설에 흥분하고 바스띠유의 파옥(破獄)에 흥분하고 적자생존에 흥분하고, 붉은 광장에 흥분하고— 늘 그때마다 환멸을 느끼곤 했던 것’이다. 사상의 투신과 참전(參戰)은 누헤로 하여금 현실의 부조리함과 인간 역사의 우연성과 폭력성, 진리의 허구성을 깨닫게 만들어 줄 뿐이었다.

신, 영원—자유에서 빔어져 생긴 이러한 ‘뒤에서 온 설명’을 가지고 ‘앞으로 올 생’을 쟀다는 것은 하나의 도살이요, 모독이다. 생은 설명이 아니라 권리였다! 미신이 아니라 의욕이었다! 생을 살리는 오직 하나의 길은 자유가 죽는 데에 있다. ‘자유’ 그것은 진실로 그 뒤에 올 그 무슨 ‘진자(眞者)’를 위하여 길을 외치는 예언자, 그 신발끈을 매어주고, 칼을 맞아 길가에 쓰러질 ‘요한’에 지나지 않았다.

(pp.122-123)

‘자유가 진정한 실존을 위한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실원칙으로 합리화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식의 쉬지 않는 각성을 통해 끊임없는 무화(無化)의 허무 위에서 갱신되어야

13) 멜랑콜리는 극적 반전, 즉 극단적인 감정들의 급격한 전환을 특징으로 한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극도의 권태감으로 이행되는가 하면, 터질 듯한 충일감과 끝없는 공허감 사이를 오락가락 반복한다.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의 변덕, 극단으로 치닫는 감정의 큰 기복이 멜랑콜리를 특징짓는다. -멜랑콜리는 강한 자의식을 전제한다. 자기의식이 없는 멜랑콜리케는 없다. 세상사에 무관심해지고 고립된 자기에 침잠하는 자가 전형적인 멜랑콜리케다. 아니 어쩌면 세계, 타인과 분리되고 고립된 자아에게 멜랑콜리는 불가피한 정조일 것이다.—타자로 향하는 길을 스스로 봉쇄하고, 타자에 무관심하도록 만들 만큼 비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멜랑콜리케가 될 수 있다. (김동규(2010)『멜랑콜리 미학』문학동네, pp.269-271 참조바람)

하는 것¹⁴⁾이다. 사상보다 인간 존재의 필연성을 설파하는 종교, 특히 기독교의 진리인 하느님과 영생의 개념 역시 실존보다 앞서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누혜는 요한을 빌려와 되새긴다. 이러한 누혜의 인식은 그대로 동호를 통해 다시 나타난다. 동호는 살아남아 포로수용소를 벗어난 다음 ‘자유는 무거움이었다. 설렘이었다. 그것은 다른 섬에의 길ियो, 또 다른 포로수용소의 문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되뇌인다. 그 이후 남은 것은 누혜의 죽음과 살아남은 동호의 내던져진 존재로서의 무거운 자각뿐이다.

요조는 도깨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지만 아버지의 반대와 세상의 부조리함에 꺾여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누혜와 마찬가지로 요조 역시 젊은 시절 사상에 투신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합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고(그것에서는 한없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구조가 불가해해서 뛰어난 비합법의 세계로 다가오는 일종의 피난처’였을 뿐이다. ‘즉 운동 본래의 목적보다도 그 운동의 표피’에 적당히 끼어들어 엄혹한 현실의 압박을 피해보지는 회피의식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런 사상에의 투신이 그에게 진정한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요조는 오히려 애증과 절망 속에서 반복하여 자살 시도를 감행하게 된다. 그의 반복되는 자살 시도는 일종의 궁여지책이자 돌파구이자 도망쳐 숨을 수 있는 은신처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자살 시도 가운데 그가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신이다. 요조는 수기 초기에서부터 자신의 생을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죄의 씨앗’이라고 내내 되뇌이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요조는 그러나 기독교적 신앙 속에서도 구원을 얻진 못하고 오히려 현재 삶의 부조리함과 무기력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뿐이다.¹⁵⁾ 이는 어쩌면 거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표상과 하나님의 표상이 겹쳐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소설 후기에서 화자는 요조의 죽음에 대해 요조를 알던 마담으로부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알던 요조는 아주 순수하고 눈치 빠르고—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 마셔도—하느님같이 착한 아이였어요’라는 말을 듣는다. 권위와 별로 표상되는 아버지의 존재는 요조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의식에 시달리게 만든 근원이었던 것이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것이지만 그 품에 안길 수는 없는 실존적 자의식 때문에 요조는 자살과 술과 마약으로 자학하고 그 죄의식으로부터 도망치고자

14) 김정관(2010.12)「장용학 소설의 서사 원형(原型) 연구 : 종말의식과 묵시록적 인식구조를 중심으로」『비평문학』38 한국비평문학회, p.175

15) 이에 대해 박영준은 ‘다자이가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신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별만을 주는 신을 발견했던 것은 다자이가 성서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비롯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서를 이해하면 할수록 다자이는 역으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라고 말한다.(「다자이 오사무의 죄의식에 관한 연구」, p.309 참조바람) 요조의 죄의식으로 드러나는 다자이 본인의 기독교적 신앙과 죄의식에 대해서는 현재 논자의 능력 밖이거나 다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했던 것이다.

누혜의 자살은 그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도망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실존의 의미를 찾아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마저 희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기다릴 수 없다. 즉시 나는 나를 보아야 한다. 마지막 권리를 가지고 내 눈으로 나는 나를 보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시선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시선들이 얽혀서 비쳐진 환등(幻燈)의 그림자를 떠낸 윤곽에 지나지 않았던 나는 비로소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탈출할 수 있고, 안개 속으로 나타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p.124)

그러기 위해 그는 자살을 선택한다고 밝힌다. ‘자살은 하나의 시도요, 나의 마지막 기대’라는 것, 그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짓게 되는 현실의 부조리를 초월하고자 하는 실존적 의지이다. 누혜의 유서를 다 읽은 동호는 ‘있을 수 있는 일은 무수이다. 그 무수의 가능성이 하나의 우연에 의하여 말살된 자리가 존재이다. 따라서 존재는 죄지은 존재이다’. 우연적 존재로서 존재 그 자체가 죄지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존재의 부조리는 그 모든 가능성을 초월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이다.

4. 나가며 - 삶에 대한 희망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한일 전후 문학에 나타나는 실존주의적 경향을 일반화시킬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겠으나 양국의 전후 소설에 있어 중요한 텍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즉 자기(自己)를 통해 현실 속에서의 삶의 의미를 천착하고자 했던 지식인의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는 공통된 문제에 대면할 수 있었다.

다자이 오사무는 삶과 자신에 대한 생애적인 감각 속에서 현실을 관통해 나갔고 장용학은 현실을 자기 존재의 질문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원형으로 파악하면서 인간 존재의 본래적 의미를 천착했다. ‘집이나 사회, 역사가 그의 생을 옴아매는 플러스(+)로 작용할 때 그의 생은 마이너스(-)로 작용했다.’¹⁶⁾ 즉 가문, 사회, 역사가 그를 옥죄었을 때 그는 익살꾼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이로 저항하고 자기 존재를 집단과 유리시켜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알았다고 했을 때, 즉 집단과 사회, 역사가 떨어져 나갔을 때 거기에는 진정 그가

16) 호쇼 마사오 외, 앞의 책, p377

찾고자 했던 실존, 개인이 존재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가 깨달은 개인은 끝없는 투쟁 가운데 놓인 무기력한 개인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그의 실존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인간실격』은 전후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요조는 작품 속에서 자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만 결국 다자이 오사무는 『인간실격』을 끝낸 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자살을 감행하였고 성공하였다. 스물일곱 살에 불과한 요조는 스스로 자신을 인간실격자라고 말하며 정신병원에 갇힌 상태에서 행복도 불행도 없고,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이라고, 마치 유언을 남기듯 수기를 마친다. 요조는 살고 싶었을까. 전전(戰前)의 요조는 살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 제스처로 끝난 자살을 반복하면서. 그러나 전후(戰後)의 다자이 오사무는 결국 진짜 자살을 하고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까.

『요한시집』에서 누헤는 유서를 남기고 철조망에 목을 매어 자살했다. 그의 유서를 들고 동호는 누헤의 어머니를 찾아가고 그 가운데 수많은 상념을 직접 말한다. 요조와 화자에 비해 누헤와 동호는 거리가 훨씬 가깝다. 누헤는 죽었으나 동호는 살아남았다. 장용학도 자살하지 않았다. 요조는 죽지 않았기에 다자이는 자살했고 누헤는 자살했기에 동호와 장용학은 살아남았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여기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대한 ‘적어도 그의 실존사상은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며 선택과 행동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⁷⁾라는 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진술과도 상통하는 것일 터인데, ‘자유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철학이며, 성실과 용기를 무기로 삼아 현실을 직시하고 사물을 철저하게 통찰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철학’¹⁸⁾으로 실존주의를 해석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한 점에서 작품 속에 요조를 정신병원에 가둔 채 본인은 자살하고 만 다자이 오사무나 누헤를 자살하게 만들고 살아남은 동호를 황폐화된 현실에 남겨둔 채 본인은 창작의 장을 떠나버린 장용학, 그 둘의 전후 행보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하겠다. 어쩌면 그 외에는 전후 참혹한 현실 앞에 던져진 존재의 무거움을 드러내는 길은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參考文獻】

- 『한국전후문제작품집』신구문화사(1964)
 장용학(1986)『요한시집』『20세기 한국소설』15창비
 太幸 治(2013)『人間失格』集英社文庫
 김동규(2010)『멜랑콜리 미학』문학동네

17) 열암기념사업회 엮음, 박종홍(1998)『실존철학과 동양사상』『박종홍 전집』II 민음사, p.501

18) 지여울 옮김, 게리 콕스(2012)『실존주의자로 사는 법』황소걸음, p.11

지여울 옮김, 개리 콕스(2012)『실존주의자로 사는 법』황소걸음
 김정관(2010.12)「장용학 소설의 서사 원형(原型) 연구 : 종말의식과 묵시록적 인식구조를 중심으로」『비평문학』38 한국비평문학회
 박명진(2013.6)「1950년대 전후 희곡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우리문학연구』39 우리문학회
 열암기념사업회 엮음, 박종홍(1998)「실존철학과 동양사상」『박종홍 전집』II 민음사
 박훈하(1996.3)「「요한시집」과 실존주의와의 대화성 시론(試論)」『코기토』48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유숙자 옮김, 다자이 오사무(2005)「만년(晩年)」『한림신서 일본현대문학대표작선』1 도서출판 소화
 엄창섭(1995.9)「실존주의 문학의 이론」『비평문학』9 한국비평문학회
 이재성·조민지(2009.8)「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정신분석학적 고찰」『일본학보』80 한국일본학회
 호쇼 마사오 외(1999)『일본현대문학사 상』문학과 지성사

논문투고일 : 2015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4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4월 20일

〈要旨〉

한일 전후 소설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 비교 연구*

- 太宰治(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과 장용학의 『요한 시집』의 작중 인물을 통해 -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완성된 마지막 소설 <인간실격>은 그의 자전적 요소가 깊게 배어 있으면서 전후 시대 상황과 맞물려 실존주의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작품이다.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 역시 “재앙”으로서의 전쟁과 전후 사회라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실존적 불안, 고독, 저항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장용학의 <요한시집>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인간실격>에서 요조라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거나 상식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인간이다. 그는 닫힌 사회에서 곧 “실격자”를 의미한다. 그러한 요조는 다자이 오사무의 자의식이 투영된 인물이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 절망하고 철저히 소외되어 버리는 인간은 <요한시집>의 누헤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전쟁과 포로수용소라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야만의 시공간은 본질적인 인간 자체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집단적이고 폭력적이며 부조리한 역사의 청산, 개별자로서의 실존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바로 이 소설의 주제이다. 요조는 도깨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지만 아버지의 반대와 세상의 부조리함에 꺾여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것이지만 그 품에 안길 수는 없는 실존적 자의식 때문에 요조는 술과 마약으로 자학하고, 자살을 통해 그 죄의식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했던 것이다. 누헤의 자살은 그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도망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실존의 의미를 찾아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마저 희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한일 전후 문학에 나타나는 실존주의적 경향을 일반화시킬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겠으나 한일 전후 소설에 있어 두 작품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 지식인의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당대에 던졌던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omparative study on the aspect of existentialism reflected in postwar novels in Korea and Japan

- Based on the characters who appear in the Japanese novel 『No Longer Human』 by Osamu Dazai (太宰治) and the Korean novel 『Poem of John』 Yong-hak Jang -

『No Longer Human』, the Osamu Dazai(太宰治)'s last novel, features his autobiographical perspective strongly incorporated in it and existential aspects interlinked with postwar circumstances.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ld War 2 and the Korean War, existential aspects reflected in Korea novels in 1950s reveal such issues as existential anxiety, loneliness and resistance under the unreasonable reality of wars and postwar societies. 『Poem of John』 is one of the most iconic pieces of literature in that era.

A person named ‘Yojo’ in 『No Longer Human』 can neither be explained in a reasonable manner nor understood based on common sense. He was nothing but a “loser” in a closed society of the time. However, Yojo reflects Osamu Dazai’s sense of identity. When it comes to a postwar victim who suffers intense feeling of alienation and lost hope faced with harsh reality, Nuhye in 『Poem of John』 is no different. The visuospatial conditions of the Korean War and a POW camp that are characterized by irrationality, violence and barbarism reveal intrinsic irrationalities of humans. Overcoming the history marred by collective violence and irrationalities and a pursuit of existential freedom as individuals are the main theme of this novel. Yojo dreams of becoming a painter who paints goblins but fails to realize it due to the opposition of his father and the irrationality of reality. Escaping from his father is something overwhelming that instigates a strong sense of guilt but the existential self-consciousness forces him to torture himself with alcohol and drug and tries shake off the guilt through suicide. The suicide of Nuhye carries a lot more active meaning than that as it resulted from his voluntary intention to sacrifice freedom granted to him in an attempt not to escape but to find the true meaning of earnest existence.

It is, of course, not rational to generalize existential aspects reflected in postwar literature of Korea and Japan through the literary works of these two authors but it is worth noting that these literary works revealed a common contemporary issue of questioning the self existence of intellectual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harsh reality.